

# “사무치고 사무쳐라... 일대사 해결이 진정한 해제”

## 무문관 안거 마친 설악 무산 스님 백담사 무금선원 해제 법회 법문

음력 정월 보름보다 하루 앞선 3월 4일 백담사 무금선원 동안거 해제 법회가 백담사 검인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해제 법회에는 신홍사 향성선원 12명, 백담사 무문관 11명, 백담사 기본선원 63명의 납자들이 3개월 동안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다.

무산 스님은 신홍사와 백담사 조실에 오르며, 수좌들의 선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선원이 없던 백담사에 무금선원을 개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조계종 기본선원을 이곳에 유치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동안거때에는 조실로는 드물게 고행에도 직접 무문관에 방부를 들었다. 함께 입방한 수좌들처럼 철저히 무문관 규칙을 따르며 똑같은 일과로 수행했다. 해제 후 안거증도 받았다. 유나 영진 스님에 따르면 무산 스님은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무문관에 계속 들어갈 듯도 내비쳤다고 한다.

동안거 해제 법회를 위해 법상에 오른 무금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주장자를 내려친 뒤 아래와 같은 계승을 읊었다.

최잔고목의한림(惟殘枯木倚寒林)  
기도봉춘불변심(幾度逢春不變心)

초객과자유불고(樵客遇之猶不顧)  
영인나득고추심(詠人那得苦追尋)

일지하엽의무진(一池荷葉衣無盡)  
수수송화식유여(數樹松花食有餘)

강피세인지주처(剛披世人知住處)  
우이모사입심거(又移茅舍入深居)

이상해진 고목이 한림 속에서  
봄을 몇 번 만나고도 맘 변하지 않았네.  
나무꾼이 보고도 본체만체 하는 것을  
먼 곳에서 사람이 힘들여 찾아올 게 무엇인가?  
연못의 연잎이면 입을 옷 충분하고  
소나무 몇 그루 송화가 무로도 먹을 것이 남네.  
사람들에게 있는 곳 알려졌으니  
피집 옮겨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겠네.

설악 무산 스님은 이어 이 계승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계승은 대매(大梅) 법상(法常) 선사의 계승이다. <전등록>에 따르면, 대매 법상 선사는 어릴 때에 형주(兖州) 옥천사(玉泉寺)로 출가해 사문이 되었다. 대매 법상 선사는 마조(馬祖) 선사를 찾아뵈고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대매 법상 선사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후 대매 법상 선사는 천태산(天台山) 여유(餘姚)의 남쪽에 은거하면서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염관(鹽官) 제안(齊安) 선사 밑에서 수행



동안거 기간동안 백담사 무문관서 정진한 백담사 무금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이 지난 3월 4일 백담사 검인당에서 거행된 해제 법회에서 법어를 내리고 있다.

“대중들이여 매실이 잘 익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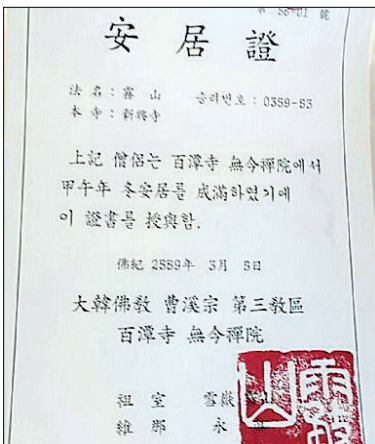
무산 스님, 법문때 대매선사 일화 소개

마음의 고삐 다잡아야 함을 강조

생무·고구마 한끼 해결하며

3개월간 수좌들과 똑같이 수행

스님의 사무친 화두는 무엇까



무산 스님의 무문관 동안거 수행을 증명하는 ‘안거증’. 무산 스님 명의로 발행된 것이 흥미롭다.

하던 스님이 우연히 대매 법상 선사의 암자까지 오게 되었다. 이 스님은 대매 법상 선사를 보고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얼마동안 여기에 계셨습니까?”

“사방의 산이 푸르렀다 누렇게 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산을 벗어나는 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뱃물이 흐르는 곳을 따르라.”

이 스님이 돌아와서 대매 법상 스님 만난 일을 털어놓으니 염관 제안 선사가 말했다.

“내가 강서(江西)에 있을 때 한 스님을 만났다가 그 뒤로는 소식을 몰랐는데 그 스님이 아닐까?”

염관 제안 선사는 대매 법상 스님에게 다시 제자를 보냈다. 대매 법상 스님을 불러오기 위해서였다. 다시 스님이 찾아오자 대매 법상 선사가 읊은 시가 바로 설악 무산 스님이 해제 법회에서 읊은 시이다.

설악 무산 스님은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대매 법상 스님의 일화를 설명하면서 “수행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사무치고, 사무치고, 사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수행자는 생사고해를 타파하고, 일대본분사를 해결할 때까지 진정한 해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어 대매 법상 스님과 마조 스님의 제자가 주고받은 선문답도 소개하였다.

마조 선사가 대매 법상 선사의 근황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 그 스님이 대매 법상 스님을 보고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마조를 뵈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에 여기에 사십니까?”

대매 법상 선사가 대답하였다. “마조선사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心卽是佛)라 하시기에 나는 여기에 와서 산다네.”

“요사이에는 다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고 하십니까.”

대매 법상 선사가 다시 말했다. “그 늙은이가 사람 속이기를 그칠 날이 없구나. 자기 멋대로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 하나 나는 내대로 마음이 곧 부처라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조 선사가 기뻐하면서 말했다.

“대중들이여, 매실(梅子)이 잘 익었구나.”

설악 무산 스님이 대매 법상 선사의 이야기를 전한 까닭은 수행은 마음 밭을 일구는 것이고, 마음 밭을 일구려면 단단히 마음의 고삐를 쥐어야 함을 강조하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어라”

법문 중 파격 퀴즈대회 열고

학생에게 배운 “괜찮아” 설법

퀴즈 방편으로 깨달음 쉽게 전해 ‘눈길’

기 위한 것인 듯싶었다.

설악 무산 스님은 자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한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대매 법상 선사의 계승을 주련으로 쓰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속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영진 스님이 오늘 해제 법회 법어로 이 글을 써온 거야. 마음이 통한거지.”

설악 무산 스님의 말은 수행력이 깊어지면 서로 말하고 듣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렇게 법어가 끝나는 듯싶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악 무산 스님은 이색적인 퀴즈 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따로 마련한 문봉투를 꺼내 보이며 퀴즈의 정답을 아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설악 무산 스님의 입에서 나온 문제는 선어도, 경구가 아니었다.

“2005년 이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 말이 뭐가?”

오명철 ‘동아일보’ 前 편집국장이 손을 든 뒤 답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설악 무산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인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어라.”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서 한 말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이 다른 질문을 냈다.

“그렇다면 올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 말은 무엇인가?”

이어 설악 무산 스님은 몇 가지 힌트를 줬다.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올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그레이엄 무어의 소감이라고 일러줬다.

다시 오 명 편집국장이 손을 들고 답했다.

“이상해도 괜찮아, 남과 달라도 괜찮아(Stay weird, Stay different)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어 자신이 스티브 잡스와 그레이엄 무어의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소개했다.

“신문도 읽을 수 없고, 컴퓨터도 쓸 수 없는 무문관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설악 무산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는 한 학생이 안거증 쪽지를 넣어주었던 것이다.

“그 학생이 날 찾아왔다가 안거 중이라 못 만나니까 쪽지를 남겨놓고 갔어. 학생이 내가 노망나서 무문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신문서 읽은 모양이야. 학생은 조금 걱정이 됐겠지. 내가 노망나는 바람에 자기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대학도 못 가는데, 하는 걱정이.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야.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아. 대학 못 가도 괜찮아. 편지를 보니 ‘노망나도 괜찮아’ 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레이엄 무어가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에서 ‘이상해도 괜찮아’고 말했다면서, ‘사부대중의 웃음이 터졌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동안거, 안거 해제 법회 때마다 내가 다소 고민을 했거든. 공부하는 수행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문이 없을까하고, 그런데 그 학생의 편지를 받고 내가 깨달았어. 특별히 감동을 주지 않는 법문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영진 스님의 전언에 따르면 설악 무산 스님은 다른 납자들과 똑같이 무문관 11호실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만 들면서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생고구마와 생무를 들면서 설악 무산 스님이 ‘사무치고, 사무치고 또 사무치게’ 잡은 화두는 무엇일까?

백담사를 빠져나오는 길, 하루 전 내린 눈발이 햇볕에 빛나고 있었다. 문득 미당 서정주의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이 떠올랐다.

수부묵이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가투리 매추래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중략) 울고/웃고/수구리고/세파라니 열어서/운명(運命)들이 모두가 안기어 드는 소리//큰놈에겐 큰놈물 자국, 작은놈에겐 작은 웃음 흔적

그리고 보면 내설악에는 참으로 품이 넓은 산주가 있어 울고, 웃고, 수그리고 세파라니 언 손을 탄 모든 것들이 안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유용우 작가

사진=김주필 기자

## 2015(불기 2559)학년도 삼학불교 전문강원 학인모집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안내

과정	기간	교육과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고
		1학기	2학기			
치문반	1학년	치문경훈	대승법백명문론	월·화요일	오후 6시 ~ 9시	
사집반	2학년	도서, 선요	서장	목·금요일	오후 6시 ~ 9시	
사교반	3학년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2016학년도 개강 예정임		
	4학년	대승기신론, 능엄경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5년 3월 9일 → 치문반 (1학년)

2015년 3월 12일 → 사집반 (2학년)

◆ 강원수강료 : 1학기당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접수문의 : ☎ 02) 833-0374, 010-9728-0788

※ 한문이 익숙치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상원사에서는 행자를 모집 합니다.

상원사 주지 정산당 법정  
삼학강원 강주도 종 (\* 전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합장

### 명리학(미래예측학) 모집

木 火 土 金 水

◎ 홍람을 피하고 “길” 함을 좇는다 ◎

- ◎ **모집학과**
  - 명리기초반 : 6개월 (목요일 14:00 ~ 17:00)
  - 명리고급반 : 6개월 (금요일 14:00 ~ 17:00)
  - 통변실전반 : 6개월 (개인지도)
- ◎ **개강일시**
  - 기초반 : 3월 12일 14:00 ~ 17:00
  - 고급반 : 3월 13일 14:00 ~ 17:00
- ◎ **수강료**
  - 기초반 : 월 20만원
  - 고급반 : 월 30만원
  - 실전반 : 별도 상담
- ◎ **문의전화**
  - 교수직통 : 010-5205-6535
  - 사무실 : 02) 833-0374
- ◎ **강사 : 서전 윤 관 교수**  
(※ 현 상원사 백상문화원 부원장)

\*친기누설을 함부로  
입에 담지말라

오시는길

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상원사 관악농협 대림동지점 맞은편  
②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 로 나오셔서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 문의주세요